

제주 외국인 투자 실효성 있나

신고액 중 실제 투자는 약속금액의 30% 수준 그쳐
제주도 신고건수 2047건 중 335건·46억달러 유치
실적 제자리걸음속 투자 유치국 다양화에도 한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투자액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 도입 후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별다른 투자 유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신고 건수는 7만5150건에 3601억4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자 유치에 성공해 실제 도착한 국내 투자 건수 및 금액은 3만7598건·2297억15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주도 외국인 투자 신고 건수는 2047건이지만 실제 도착한 건수는 335건에 46억8100만달러였다. 실제 투자는 약속 금액의 30% 정도

만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12개소에 30억2906만 달러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후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에 따른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나마 투자유치란 명목을 유지해 왔으나 제주도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고 IT·BT 등 신산업으로 투자 타격을 변경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기준 85건·4억1700만달러로 2018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에 따른 중국 자본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달 중국 자본이 추진해 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743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 6000여㎡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신화련은 투자자금 조달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770억1000만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중국정부의 자본해외유출 금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편 제주도는 IT·BT·CT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유치도 차이나머니에서 벗어나 북미(신재생에너지, EV), 싱가포르(블록체인), 일본(6차산업, BT), 유럽(스마트시티, 화장품)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나 한계점에 도달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강남으로 떠나기 앞서 충전중인 제비 제비들이 월동지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떠날 준비를 위해 13일 저녁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마을 전깃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제주서 관리

제주마·흑돼지·흑우 등 7종... 진돗개는 제주가 유일

제주마, 제주흑돼지, 제주흑우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이 제주에서 집중 보존·관리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 7종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각각 분산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가축은 모두 살아있는 동물로만 보존돼왔지만 최

대상 가축 7종은 제주마, 제주흑돼지, 제주흑우를 비롯해 진돗개, 삼삼개, 동경이, 오계 등이다. 다른 종과는 달리 진돗개·삼삼이·동경이 등 3종의 개에 대한 유전자원은 모두 다른 개체로 보존된다.

앞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가축유전자원센터와 도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센터가 위치한 옥지(경남 함양군)와 섬지역인 제주로 분리해 한층 강화된 보존체계를 구축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애물단지'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재매각도 불발

코로나19로 투자심리 위축도, 수익계약 추진계획 불구 올해 내 소유권 이전 차질
유지비 3억원 등 재정손실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로 '애물단지, 현세낭비' 지적을 받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의 두번째 매각 입찰도 불발됐다.

두번의 유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익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매각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입찰 공고' 개찰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앞서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첫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전국 일반경쟁 매각 입찰공고'에서도 입찰자가 한명도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이같은 매각 난항에 올해 안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도의 목표 달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도는 최대한 수익계약을 찾아본 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가격을 인하(10%)해 재입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 17억4700여만원이다.

현재 부지 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약 3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재정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를 이어왔다.

도는 지난해 운영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부지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부담에 따른 도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선택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 추석연휴 고비... "철통방역 해달라"

원 지사, 주간정책회의서 지시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연휴기간이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철통방역'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14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추석연휴 대비 방역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주제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도

민 생존이 제주도정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철통방역"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은 민족의 이동과 연휴기간 가족·친척 모임으로 인한 잠재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위험요소에 대한 방역지도 및 강력한 계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강화된 대책을 추진

하면서 8월말 집단감염 발생에도 지역감염으로 가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석명절을 잘 넘기면 연휴 이후 전도민 예방접종을 통해서 가을철 코로나19에 보다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방역 강화의 원칙이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달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올해는 집안 행사나 동창·동문·향우회 등 친목 모임 등은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강력히 권고하라"고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까지

